

새끼 호랑이 누굴 키울까?

“아, 누굴 데려와야 하나” 프로야구 전체 2차 1순위 지명권을 갖고 있는 KIA가 실력이 엇비슷한 투수 4명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양현종) (장효훈) (이창욱)

KIA, 신인 2차 1순위지명 놓고 고성 동성고 양현종 등 투수 4명 '저울질'

우선 고교선수 중에서는 지역연고 '좌완 특급'인 동성고의 양현종이 가장 눈에 띈다. 140km 중반의 빠른 직구를 보유한 양현종은 프로 구단의 1차 지명을 받지 못했지만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유망주다. 이미 미네소타 트윈스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기도 했다. 선동철 삼성 감독도 최근 “양현종 등 우수투수를 매년 배출하는 광주를 연고로 둔 KIA가 부럽다”며 무회적으로 양현종을 높게 평가했다. KIA는 그러나 양현종 외에도 천안 북일고 장효훈과 광주고 이용환 등 타 지역 선수들에게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우완 정통파인 장효훈은 최고구속 152km, 평균 145~147km의 빠른 볼과 125km

안팎의 각도 큰 커브가 강점이다. 다만 한 번 무너지면 폭투를 남발할 정도로 불안한 제구력이 약점이다. 공주고의 이용환은 미래성이 뛰어난 재목으로 평가받고 있다. 143~145km대의 볼 스피드를 지닌 이용환은 제구력면에서는 고교투수 중 최고의 실력을 자랑한다. 하지만 중요 승부처에서 결정적인 위력구가 없다는 게 단점으로 꼽힌다. 대학선수 중에는 고려대 우완 이창욱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181cm, 75kg의 좋은 체격 조건을 갖춘 이창욱은 자로겐 듯한 완벽한 제구력으로 140km 초반의 느린 볼 스피드를 커버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KIA 스카우트팀 관계자는 “이들 4명을 눈여겨 보고 있지만 초특급 선수들은 아니다”면서 “매년 이맘때쯤이면 2차 1순위 정도는 확정되는데 선수들의 실력이 엇비슷해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14일 오후 최종 회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KIA의 타 지역선수 영입 움직임에 대해 광주 야구계에선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지역 야구계 한 원로는 “엇비슷한 실력이라면 연고구단에서 지역 출신의 선수를 뽑아 키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면서 “지난해에도 2차 지명을 타 지역에서 데려왔는데 올해만큼은 지역 유망주를 발탁, 프랜차이즈 스타로 만들어 냈으면 한다”고 지역 야구계의 분위기를 대변했다. 이 원로는 특히 “KIA에서 꾸준히 연고지역 아마 야구를 지원해 오고 있는데 그 연계상에서라도 지역 유망주를 발탁·육성하는 게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지명은 지난해 팀 성적의 역순으로 지명권을 행사하는데 KIA는 지난해 최하위에 머물렀기 때문에 전체 1순위 지명권을 갖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KIA V10 기원' 개그맨 응원 영상물 상영

“V10 달성을 기원합니다” 프로야구 KIA타이거즈가 13일부터 무등경기장 야구장 전광판을 통해 선수 가족과 KBS 개그콘서트 팀원들의 'V10' 달성 기원을 담은 응원 영상물을 상영한다. 이번 영상물은 무더운 여름에 지친 선수들에게 힘을, 팬들에게 불거리를 주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KIA타이거즈의 4강 진출은 물론 한국시리즈 'V10'을 기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진우, 윤석민, 전병두, 한기주, 장성호, 홍세안, 김상훈, 이현근, 김원섭, 이용규 등 한지붕 10가족이 출연한다. 또 KBS 개그콘서트의 '집으로' 김준호, '현대생활백서' 고해성, '고음불가' 이수

김준호·이수근 등 메시지 답아 김진우 등 선수들 가족도 참여 근·류담·변기수를 비롯해 김대희, 유상무, 유세윤, 박희순, 권재관 등도 KIA의 승리를 염원하는 응원 메시지를 답아냈다. 한편 KIA타이거즈는 앞으로 팬들의 열원과 응원메시지가 담긴 영상물도 제작, 상영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신바에바 그랜드 슬램 엘레나 이신바에바(24)가 13일 스웨덴에서 열린 2006 유럽육상선수권대회 여자 장대높이뛰기에서 우승(4m80),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뒤 기뻐하고 있다. 이신바에바는 이로써 하계올림픽,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에 이어 4대 육상 이벤트를 모두 제패한 선수가 됐다. /연합뉴스

“디펜딩 챔프 꼭 지킬거야”



이미나가 13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런던의 런던헛트골프장에서 열린 미 LPGA 캐나다여자오픈 3라운드 17번홀에서 티샷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이미나 9언더 2위...선두와 4타차

이지영 3위·김영 5위 LPGA 캐나다여자오픈 3R

이미나(25·KTF)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CN캐나다여자오픈에서 6언더파를 치며 단독 2위로 뛰어올랐다. 이미나는 13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런던의 런던헛트골프장(파72·6천611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6개를 쓸어담으며 6언더파 66타를 쳐 중간합계 9언더파 207타로 단독 2위가 됐다. 지난 해 이 대회 우승자인 이미나는 선두 앤젤라 스탠퍼드(미국)에 4타차로 따라붙었다. 3.4번 홀과 9.10번 홀에서 연속 버디로 기세를 올린 이미나는 마지막 18번 홀에서도 버디를 낚아 최종 라운드에서의 상승세를

에 감겼다. 전날까지 선두에 3타 뒤진 공동 2위였던 이지영(21·하이마트)은 이날 버디 5개, 보기 4개로 왔다갔다하며 1타밖에 풀이지 못해 중간합계 8언더파 208타로 단독 3위로 내려앉았다. 1위를 달리고 있는 스탠퍼드는 버디 5개와 보기 2개로 3언더파 69타를 쳐 중간합계 13언더파 203타로 자신의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을 눈앞에 두게 됐다. 스탠퍼드는 11번 홀에서 버디를 기록하며 한때 2위와 6타차까지 차이를 벌였으나 이어진 12,13번 홀에서 연달아 보기에 그쳐 추격을 허용했다. 5타를 줄인 김영(26·신세계)이 중간합계 5언더파 211타로 공동 5위에 올랐고 조영아(22)는 3언더파를 쳐 중간합계 4언더파 212타, 공동 9위에 자리했다. 1타를 잃은 정정(26·기업은행)은 박희정



이지영이 3라운드 18번홀 그린에서 퍼트를 실패한후 아쉬워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25·CJ)와 함께 1언더파 215타로 공동 16위, 박세리(29·CJ)는 3타를 잃으며 3오버파 219타로 공동 44위까지 밀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추신수 6경기 연속 안타

추신수(24·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6경기 연속안타로 타격감을 이어갔다. 추신수는 13일 클리블랜드 제이콥스필드에서 열린 캔자스시티 로얄스와 더블헤더 1차전에서 4타수 1안타를 기록해 시즌 타율 0.327이 됐다. 우익수 겸 7번타자로 출전한 추신수는 7회 1사 뒤 좌전안타로 출루했다. 클리블랜드는 5-4로 승리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추신수는 더블헤더 2차전에는 클리블랜드 이적 후 두 번째로 결정했고 추신수 대신 트리플A에서 최근 올라온 프랭클린 구티에레스(23)가 우익수로 출장했다. 클리블랜드는 더블헤더 2차전에서 4-5로 뒤지던 8회말 그레디 사이즈모어의 솔로홈런과 트레이비스 해프너의 1타점 결승 2루타로 6-5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진흥·동성·화순·광주일고 봉황대기야구 2회전 진출

봉황대기 야구대회에서 호남권 4팀이 모두 2회전에 진출, '호남 강세'를 이어갔다. 진흥고는 지난 12일 동대문구장에서 열린 제36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용마고를 2-0으로 꺾고 2회전에 올랐다. 진흥고 '특급 에이스' 정영일은 5.2이닝 2

안타, 무실점으로 막고 승리투수가 됐다. 이어앞서 11일에는 동성고가 장충고를 3-1로, 10일에는 화순고가 원주고를 7-1로, 8일에는 광주일고가 배명고를 7-2로 누르고 2회전에 선착했다. 한편 13일부터 시작된 대회 2회전에선 14일 광주일고-군산상고(오전 10시)전을 시작으로 15일 화순고-세광고(오전 10시), 16일 동성고-대전고(오후 3시30분)·진흥고-서울고(오후 6시 30분)가 각각 16강 진출을 위한 대결전에 들어간다. /박진표기자 lucky@

이승엽 400 홈런볼·배트 삼성 라이온스에 기증

이승엽 선수의 400호 홈런배트와 볼이 삼성 라이온스에 기증됐다. 이승엽 선수의 아버지 이준광씨는 지난 12일 대구구장을 찾아 배트와 볼을 공개하고 김용흥 삼성 라이온스 사장에 전달했다. 이승엽 선수는 이날 녹화된 영상을 통해 관객들의 성원에 감사하고 “삼성 라이온스 선수배트들이 올해 한 번의 감동을 안겨달라”며 선전을 기원했다. 이날 전달된 배트와 볼은 이승엽 선수가 56호 홈런을 쳐 아시아 신기록을 경신한 뒤 기증한 배트, 볼과 함께 삼성 라이온스 경산 불파크 역사관에 전시된다. 한편 김용흥 이승엽 팬클럽 회장은 전달식이 끝난 뒤 대구·경북지역 팬들의 선전기원메시지를 모아 이준광씨에게 전달했다.